



글 최문형

박서현 그림

# 역사소설 제국의 꽃

(176) 귀향

“원종대사가 지금은 고생을 하지만 노사와 은사가 모두 칠십 팔십 노인들이니 그분들이 돌아가고 나면 엄청난 재물이 다 원종대사 차지가 될 것이니 조금만 버티시오.”

절에 있는 중들은 이렇게 말하며 창수를 집짓 부러워하였다. 창수가 ‘추수책’을 살펴 보니 경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가 매년 백미만 200여 석이나 되고 돈이나 다른 상품도 수십만 냥이 되었다. 하지만 창수는 속세와 인연을 끊지 못하고 있었다. 불도에 평생을 바쳐 불자가 될 마음은 일어나지 않았다. 불경을 암송하는 중에도 지나간 일들이 자꾸 떠올랐다.

“나는 인천옥을 탈출하였으나 부모님은 어찌하고 계시까? 과연 무사하실까?”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은 있었으나 보경대사의 뜻대로 되었다. 그는 창수에게 가사와 바리때, 백미 열 말을 주었다. 창수는 백미를 팔아 여비를 마련하고 서울로 향했다.

며칠 안 되어 서울에 도착하였으나 중은 사대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서문 밖에 있는 절에서 하루 묵으면서 혜정이란 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창수는 그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마침 혜정 스님이 평양 구경을 떠난다고 하였다.

“저의 고향이 황해도 해주이니 평양은 거기서 아주 가깝지요. 제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원종 스님, 고맙습니다. 저는 경상도 풍기에서 왔습니다. 평양에 가고는 싶었으나 한 번도 가보지 않아 염두가 나지



나를 도우려 재산을 다 날리고 자신의 신세까지 망친 김주경 어른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고향 해주의 고승선 선생님은 아직 건강하게 살아 계실는지? 안진사가 내 목숨을 살려 주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좁은 마음에 안진사의 천주학 입교를 좋지 않게 보고 고향을 떠났는데 사과할 기회나 있을까?”

불상 앞에 절을 올리는 동안에도 부처님 상 위로 어머니, 아버지, 고 선생, 김주경, 안진사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창수는 어느 날 아침 마음을 다잡았다. 세상에서 못다 한 일이 있는데 산속에 계속 숨어 있으면서 보경대사의 재산이나 기대하고 살 생각은 전혀 없었다. 창수는 용기를 내어 보경대사를 찾았다.

“대사님, 소승이 불도에 입문한 바에야 불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금강산에 가서 경전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너의 마음이 그렇다면 허락하다.” 보경대사는 순순히 허락해 주었다. 그는 하은당에게 창수의 일을 의논하였다.

않았습니다. 이 모두가 부처님의 은덕이 습니다.”

혜정 스님은 함장을 하며 감사 인사를 했다. 두 사람은 임진강을 건너 개성과 해주부터 구경하고 평양으로 가기로 하였다. 해주 외곽의 수양산 신광사에 도착하자 창수는 혜정 스님에게 자신의 내밀한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원종 스님이 바로 그 유명한 김창수님입니까? 우리 조선에 원종 스님처럼 용감하고 정의로운 영웅이 계신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혜정 스님은 창수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아주 반가워했다.

“스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뒷골에 있는 저의 본가에 가서 부모님을 몰래 만나 주십시오, 아들 창수는 잘 지낸다고 전해 주시고,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비밀로 하십시오.”

“소승이 원종 스님을 돕는 것은 부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염려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 100년 전 英화가 그림을 ‘현대무용’으로

## 엘리자베스 키스 풍속화 24점 서울시무용단 신작 11월 공연

한국을 사랑한 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가 남긴 그림이 현대적 감각의 한국 춤으로 재탄생한다.

세종문화회관은 11월 2~5일 회관 M씨어터에서 엘리자베스 키스의 그림을 모티브로 한 서울시무용단의 신작 ‘엘리자베스 기탁’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엘리자베스 키스(1887~1956)는 1919년부터 한국을 방문해 80여 점의 한국 풍속화를 남긴 화가다. 한국의 크리스마스 seal)을 세 차례 디자인했으며, 낙관(落款)을 한국식 이름인 ‘기탁’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번 공연은 그의 그림 중 ‘시골 결혼잔치’ ‘신부행차’ ‘월산 학자와 그 제자들’ 등 총 24점을 선정해 1막 7장으로 재구성한 창작 무용이다.

100년 전 이방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신비로운 한국 풍경과 함께 나라의 주권을



엘리자베스 키스 그림 '신부행차'(1921).

연합뉴스

빼앗긴 삶 속에서도 민족성을 지키며 살아갔던 한국인의 옛 모습이 무대 위에 펼쳐진다. 두루마리 형상의 무대 위에는 엘리자베스 키스가 그린 한국의 풍경이 영상으로 구현된다.

안무는 정해진 서울시무용단장과 영국 아크람 칸 컴퍼니 출신의 현대무용가 김성훈이 공동으로 맡았다.

정 단장은 엘리자베스 키스의 그림을 작품의 소재로 삼은 이유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100년 전 흑백사진 속 조선

의 모습과 확연히 다른 다채로운 색감으로 그려져 있다”며 “그림에서 묘사된 한국의 정서와 민족의 기품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림에서 묘사된 아름다움을 정적인 안무로, 그림 속 인물들의 내면적인 이야기를 현대적인 무용으로 표현한다”며 “이방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 함께 살자나눔



## “추석연휴 반려견 돌봐드려요”

추석 연휴가 6일로 늘어나면서 여행 가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추석 명절 당일을 가족·친지들과 보내고도 이후 4일이나 주어진 황금연휴를 그냥 보내기는 아쉬우니까요.

우리 반려가족들은 반려견 동반하지 못하는 여행 예정이라면 이미 돌봄 위탁에 대한 대책 마련도 다 준비해 두셨을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어디 가볼까 생각 중이라면 반려견 돌봄에 참고할 만한 정보도 소개하려구요.

서울 노원구에서 반려견 돌봄 쉼터를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사흘간 운영하는데요. 반려견 돌봄 쉼터는 추석 귀성하는 반려인의 돌봄 부담을 줄여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고자 노원구가 6년째 계속하고 있는 동물 복지 서비스예요. 유기동물 발생이 많은 기간이 휴가철과 연휴가 있는 달이 높다는 것은 이미 여러 조사에

서 확인되었죠. 반려견을 돌보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비상 시에 이런 곳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되지요.

반려견 쉼터는 운동기구와 장난감이 구비된 놀이터와 쿠션방석, 매트 등 침구로 꾸며진 호텔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용료는 사흘간 5000원. 비용이 싸다고 돌봄이 소홀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해요. 지난 설날 이용자 22명 만족도 조사에서 재이용 의사에 전원이 그렇다고 답했다고 하니까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3인1조, 2교대로 펫시터가 상주하고, 야간에는 구청 당직자가 살핀다고 해요.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지역 내 24시간 운영 동물병원에 인계해 대응한다고 하니 안심이 되네요.

다만 쉼터 이용은 8kg 이하의 소형 견만 가능해요. 동물등록과 예방접종은 마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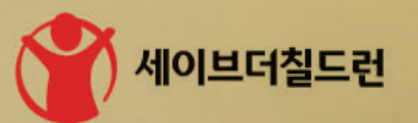
야 하고 질환이 있거나 임신한 반려견은 이용이 안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반려견이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평소 먹던 사료나 사용하던 장난감, 침구 등을 준비하면 좋겠어요.

이용 신청은 20일 오후 6시까지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독거어르신,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 노원구는 반려견 돌봄 쉼터를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사흘간 운영한다. 노원구

# 엄마 아빠, 내 백일잔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나의 백일이예요. 엄마 아빠는 벌써부터 매일 밤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념할지 의논하고 있어요.

나를 낳느라 고생을 많이 한 엄마와 매일 밤잠 설치며 재워주는 아빠 아프지 않고 잘 자라는 기특한 나를 위해 아주 특별한 기념일을 만들 거래요.

다른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특별한 나의 백일, 여러분도 함께 축하해 주실 거죠?

좋은 날, 행복을 더하는 기부 좋아서하는기념일



‘좋아서하는기념일’은 백일, 첫돌, 결혼, 일상 속 다짐 등 다양한 기념일을 기부로 기억하는 후원입니다.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는 후원 감사증서와 특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좋아서하는기념일 ▾ 을 검색해보세요!

참여문의 02-6900-4400 홈페이지 www.sc.or.kr/like

